

종교 저널리즘의 규범적 대안 모색: 원불교 교리를 통한 규범 모델의 재구성*

김승호** · 최용준***

목차

- I. 서론
- II. 종교 저널리즘의 이론적 배경과 원불교 교단 언론의 특성
 - 1. 저널리즘의 보편 규범과 가치 구조
 - 2. 종교 저널리즘의 특수성과 긴장
 - 3. 원불교 교단 언론의 역사적 정체성
- III. 원불교 교리를 통한 저널리즘 규범의 재구성
 - 1.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와 진실성
 - 2. 무아불공과 제생의세에 내재한 공공성
 - 3. 처처불상 · 사사불공과 지공무사에 나타난 공정성
 - 4. 공의와 공중의 도를 통한 절차적 투명성

* 제1저자의 박사학위청구논문 일부를 수정·재구성한 것임

** 제1저자, 전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수료

***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목차

IV. 원불교 저널리즘의 규범 모델과 실천적 함의

1. 규범 모델의 구조
2. 실천 조건과 확장 가능성

V. 결론

참고문헌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공론장의 신뢰가 약화되는 현대 저널리즘 환경에서 종교 저널리즘의 규범적 가능성을 원불교 교리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저널리즘의 위기는 기술 적응을 넘어 사실 검증, 공적 책임, 공정한 재현, 투명성과 설명 책임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종교 저널리즘을 보편 저널리즘 규범의 예외나 결핍으로 보지 않고, 종교 전통 안의 교리적 자원을 통해 저널리즘 규범을 재구성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해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개념적 재구성의 방법으로 현대 저널리즘 규범론, 종교 커뮤니케이션 논의, 원불교 교단 언론의 역사 자료, 『정전』과 『대종경』 등 원불교 핵심 교리 문헌을 검토하였다. 논의 결과, 법신불 일원상과 사리연구는 진실성을 이치와 맥락의 검토, 책임 있는 선택의 문제로 확장한다. 무아봉공과 제생의세는 공공성을 공동체 성숙과 사회적 책무의 관점에서 설명하며, 처처불상·사사불공과 지공무사는 공정성을 관계적 존중과 공변된 판단의 문제로 심화한다. 또한 공의와 공중의 도는 구조적 독립성의

한계를 투명성과 설명 책임의 문제로 재정식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원불교 저널리즘 규범 모델을 인식, 목적, 관계, 절차의 네 차원이 상호 연동하는 구조로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 진실성은 공공성의 인식적 근거가 되고, 공공성은 공정성의 목적 방향을 제공하며, 공정성은 투명성을 통해 공중의 신뢰로 연결된다. 나아가 편집 원칙, 규범적 전문성, 설명 가능한 책임 구조를 실천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원불교 교리를 저널리즘 규범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종교 저널리즘의 규범 모델을 제시한 데 있다. 이러한 논의는 종교 언론을 종교적 가치와 보편 저널리즘 규범이 접속하는 공적 소통의 장으로 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 종교 저널리즘, 원불교 교단 언론, 저널리즘 규범, 원불교 교리, 규범 모델

I. 서론

현재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는 뉴스 생산·유통·수용 구조 전반의 재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사 작성·편집, 정보 유통, 뉴스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전통 뉴스미디어는 낮은 신뢰와 이용자 관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European Broadcasting Union, 2025;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2025). 그러나 기술적 고도화가 공론장에 대한 신뢰를 곧바로 높이는 것은 아니다.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출처의 투명성, 사실 검증의 책임, 인간의 편집적 감독, 설명 책임의 문제는 더욱

중요해진다(European Broadcasting Union, 2025). 이는 오늘날 저널리즘의 문제가 기술 활용을 넘어 진실 판단의 절차와 책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규범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저널리즘 규범의 본질을 다시 묻게 한다. 현대 저널리즘 규범론은 검증된 정보 제공, 시민에 대한 책무, 언론 윤리의 역사적 재구성, 공적 책임을 저널리즘의 핵심 과제로 제시해 왔다(Ward, 2007; Kovach and Rosenstiel, 2021). 커뮤니케이션학의 궁극적 목적이 인류 사회의 복지 증진과 문명 발전에 있다는 관점 역시 저널리즘의 공적 성격을 뒷받침한다(차배근 · 하종원 · 이종혁, 2017). 이 연장선에서 저널리즘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적 통로를 넘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공적 신뢰를 형성하는 사회적 실천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신뢰 하락이라는 조건 속에서 종교 저널리즘의 규범적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실 검증으로 공공선을 지향하는 저널리즘의 목적은 가치 성찰을 통해 공동체 문제를 사유하는 종교 본연의 지향과 맞닿아 있다. 종교 언론은 교리 전달과 공동체 결속이라는 특수한 목적 때문에 보편 저널리즘 규범의 예외이거나 결핍된 형태로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종교 또한 특정 교단의 내부 결속을 넘어 사회적 삶을 개선하는 공공적 실천이어야 한다면, 종교 언론은 교단을 대변하는 보조적 수단을 넘어 종교적 교리와 언론적 규범이 교차하는 공적 소통의 장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불교적 철학과 교리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승보살도에서 보살은 자리아타적(自利利他的) 인간상으로 이해되며, 상구보리(上求菩提)와 하화중생(下化衆生)은 보살행의 두 방향을 이룬다(손병욱, 2014). 이러한 관점에서 깨달음의 추구하고 중생 구제는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실천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불교가 개인의 수행과 해탈에만 머무르지 않고, 타자와 공동체

를 향한 책임의 문제를 함께 사유해 왔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대승불교의 실천 지향은 기술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 인간의 책임, 관계, 공동체의 문제를 성찰하게 하는 규범적 자원이 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원불교 교단 언론의 맥락에서 탐색하는 이유는 원불교가 불교 전통의 사상적 자산을 계승하면서도 근현대의 조건 속에서 이를 주체적으로 재구성해 온 종교적 바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원불교와 불교의 관계는 단순한 영향 관계나 동일성의 문제로 보기보다, 역사 속에서 변용되어 온 불교 전통의 한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권동우, 2011). 또한 소태산의 불교 개혁은 불법의 시대화·생활화·대중화, 승가의 사회화, 대승불교의 개혁 사상이라는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다(김방룡, 2014; 원영상, 2014). 이러한 관점에서 원불교 교단 언론은 대승불교의 실천 지향과 원불교의 제생의세(濟生醫世) 정신이 현대 미디어 형식 속에서 어떻게 공적 소통과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번역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에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종교 저널리즘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매체의 역사적 전개, 보도 태도, 제도적 성격, 종사자 인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불교 언론 연구는 교단 언론의 제도적 구조와 편집 자율성, 현업 종사자의 역할 인식과 재교육 문제를 검토해 왔으며, 원불교 저널리즘 연구 역시 초기 정기간행물의 개혁성과 역사적 성격을 밝히는 데 기여해 왔다(송인걸, 1992; 박영학, 1996; 김영재, 2006; 김두식, 2017). 이러한 연구들은 종교 매체의 형성과 운영, 언론 실천의 조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지만, 종교 교리의 규범 자원이 저널리즘의 보편 가치와 어떻게 접속하고 재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 연구는 원불교 교리 개념에 내재한 규범적 의미를 현대 저널

리즘의 핵심 가치와 연결하여 해석하고, 이를 종교 언론의 맥락에서 저널리즘 규범 모델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첫째, 현대 저널리즘의 보편 규범 위기 속에서 종교 언론은 어떤 규범적 한계와 가능성을 지니는가, 둘째, 원불교 교리 개념은 진실성·공공성·공정성·투명성의 저널리즘 가치와 어떻게 접속하는가, 셋째, 이러한 재구성을 통해 도출되는 원불교 저널리즘 규범 모델은 어떤 구조와 실천적 함의를 지니는가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개념적 재구성이다. 본 연구는 『정전(正典)』과 『대종경(大宗經)』 등 원불교 교리 문헌, 교단 언론 자료, 저널리즘 규범론 문헌을 함께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보편 저널리즘 규범의 주요 가치를 정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원불교 교리 개념의 규범적 의미를 검토한 뒤, II장 이론적 배경, III장 규범 재구성, IV장 규범 모델과 실천 조건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II. 종교 저널리즘의 이론적 배경과 원불교 교단 언론의 특성

이 장에서는 보편 저널리즘 규범, 종교 저널리즘의 특수성, 원불교 교단 언론의 역사적 정체성을 차례로 검토한다.

1. 저널리즘의 보편 규범과 가치 구조

오늘날 저널리즘의 보편 규범은 언론의 자유를 사회적 책임과 결합하려는 논의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허친스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를 외부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로만 보지 않고, 시민 공동체에 맥락을 갖춘 진실을 제공하며 공적 토론의 장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의 문제로 확장하였다(Commission on Freedom of the Press, 1947/2005).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회책임이론을 통해 체계화되었고, 언론은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체가 아니라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제도로 이해되었다(Siebert, Peterson, and Schramm, 1956/1995).

공론장 논의는 저널리즘 규범이 작동하는 사회적 조건을 설명한다. 듀이와 리프먼은 공중의 형성과 현실 인식에서 정보와 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하였고(Dewey, 1927/2011; Lippmann, 1922/2014), 하버마스와 프레이저는 공적 토론과 권력 불균형의 문제를 통해 공론장의 규범적 조건을 논의하였다(Habermas, 1962/1991; Fraser, 1990). 이러한 논의는 저널리즘 규범이 기자 개인의 직업윤리에 머무르지 않고, 민주적 담론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적 원리임을 보여준다.

이후 저널리즘 연구는 사회적 책임과 공론장 기능을 실제 보도 수행의 기준으로 구체화해 왔다. 맥퀘일(McQuail, 1992, 2010)은 정보 제공의 질, 공익 기여, 책임성, 다양성, 접근 가능성 등을 언론 수행의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워드(Ward, 2007)는 언론 윤리 시대 변화 속에서 재구성되어야 할 규범 체계로 이해하였다. 크리스천스 등(Christians et al., 2009)은 언론 윤리를 민주사회 속 미디어 제도의 규범적 수행 구조로 논의하였으며, 코바치와 로젠스틸(Kovach and Rosenstiel, 2021)은 저널리즘의 최우선 의무를 진실에 대한 의무와 시민에 대한 충성으로 정식화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원칙으로 검증의 규율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기사 품질 연구와 저널리즘 가치 연구 역시 사실성, 균형성, 심층성, 투명성, 공익성 등을 분석 가능한 기준으로 제시하며, 보편 규범이 실제 보도 수행

의 평가 언어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경모 외, 2018; 이규원 · 이미나, 2021; 김경희 · 정사강, 2023; 이호근 외, 2023).

이들 논의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저널리즘이 사실을 어떻게 검증하고, 누구를 위해 보도하며, 다양한 관점을 어떻게 재현하고, 권력과 이해관계로부터 어떠한 자율성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저널리즘의 보편 규범을 진실성,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의 네 차원으로 정리한다. 진실성은 언론의 존재 근거를 이루는 가치로서,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정보의 검증 가능성과 사건의 맥락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다. 공공성은 언론이 사적 이해나 특정 집단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공동체의 공적 판단과 숙의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적성을 뜻한다. 공정성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을 다룰 때 다양한 관점과 평가 기준을 함께 고려하려는 판단의 영역이다. 독립성은 정치, 자본, 조직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보도 판단의 자율성을 지켜내는 가치이다.

이 네 가지 가치는 서로 분리된 덕목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 구조 안에서 작동한다. 진실성이 약화되면 공공성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고, 공공의 목적이 흐려지면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제공으로 축소될 수 있다. 공정성이 무너지면 진실은 특정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될 수 있으며,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실성, 공공성, 공정성 모두 외부 압력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대 저널리즘의 보편 규범은 언론의 자유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체계라기보다 그 자유를 공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로 전환시키는 가치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만 세속 언론을 전제로 형성된 이 가치 체계가 모든 매체 환경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특히 교리적 목적과 공동체 결속을 존재 근거로 삼는 종교 언론에서는 보편 저널리즘 규범이 제도

적·구조적 조건과 충돌하며 재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독립성은 종교 언론의 소유, 재정, 인사 구조와 가장 직접적으로 맞물리는 규범이다. 종교 저널리즘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보편 규범의 일반적 타당성을 전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종교라는 특수한 제도적 지형에서 어떤 긴장과 변형을 겪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종교 저널리즘의 특수성과 긴장

종교 저널리즘은 보편 저널리즘 규범과 특정 종교의 신념 체계가 하나의 매체 공간 안에서 중첩되는 실천 영역이다. 보편 언론에서 종교가 외부 관찰의 대상이라면, 종교 저널리즘에서 종교는 매체의 존재 이유이자 운영 기준으로 작동한다. 이 때문에 종교 언론은 사실 검증, 비판, 책임이라는 언론적 원리와 교리 전달, 공동체 결속, 조직 정당성 유지라는 종교적 기능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종교 언론을 교단의 홍보 매체나 기관지로만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종교 언론은 교리와 조직의 입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공동체 내부의 정체성과 상징 질서를 재생산하고, 그 종교적 의미를 사회적 담론의 언어로 번역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긴장은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지평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의례적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종교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가 자신들의 신념과 세계관, 소속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Carey, 1989). 동시에 종교적 의미는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으로 재구성되고 공적 담론의 장으로 이동한다(Hoover, 2006). 박영학(1998) 역시 종교와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단순한 전달의 문제로 보지 않고, 서로 다른 가치 체계가 교차하며 긴장을 형성하는 관계로 이해하였다. 이

관점에서 종교 저널리즘은 교리와 신앙을 공동체 내부에 순환시키는 매체인 동시에, 종교의 특수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번역하고 설명해야 하는 매개적 장이라 할 수 있다.

종교 언론은 교단의 교리, 정책, 행사,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공동체 결속을 유지하는 기관지적 성격과, 교단 안팎의 쟁점에 대해 의견 제시와 비판적 숙의를 매개하는 공론장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하버마스의 공론장론이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적 토론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볼 때(Habermas, 1962/1991), 공동체 보호와 조직 안정의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는 종교 언론에서는 공론장적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한국 종교 언론의 현실 역시 교단의 재정과 인사 구조에 결부됨으로써 공론장 기능과 편집 자율성이 구조적으로 제약되는 문제를 보여준다(김승수, 1999; 김영재, 2006). 종교 언론은 공동체의 소유 구조 안에서 작동하는 만큼, 보편 언론에서 기대되는 독립성과 편집 자율성을 동일한 방식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종교 저널리즘을 결핍의 형태로만 이해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미디어와 종교의 관계는 사회적 상상과 의미 구성의 차원에서 종교가 공적 의미를 획득하고 다시 해석되는 가능성을 포함한다(박진규, 2023). 이 관점에서 종교 언론은 제도적 제약을 받는 매체이면서도, 종교의 특수한 가치와 현대 사회의 공론 구조를 접속시키는 매개적 장이 될 수 있다. 종교 저널리즘은 보편 규범을 그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지만, 동시에 종교 전통 내부의 교리적 자원과 공동체적 성찰을 통해 그 규범을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할 가능성도 지닌다.

결국 종교 언론이 직면한 내재적 긴장은 진실성,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이라는 네 가지 규범적 쟁점으로 집약된다. 진실성의 차원에서는 공동체 보호 논리가 사실 공개의 범위와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공성의 차원에서는 사회 전체의 공익보다 교단 내부의 이해와 결속이 우선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성의 차원에서는 교단 내부의 권위 구조가 비판적 관점이나 이견의 반영을 제약할 수 있으며, 독립성의 차원에서는 소유·인사·재정 구조상 교단에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장 직접적인 규범적 충돌이 발생한다. 특히 독립성은 일반 저널리즘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며, 종교 조직의 구조적 조건 속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규범적 과제이다. 구조적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일수록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졌는지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 저널리즘에서는 절차적 투명성이 독립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현실적 규범 쟁점으로 제기된다.

종교 저널리즘의 내재적 긴장은 보편 규범의 한계라기보다 종교적 특수성과 언론적 보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구조적 조건에서 비롯된다. 그 규범적 정당성은 세속적 기준의 차용을 넘어, 종교 전통의 교리적 자원이 현대 공론장의 가치와 접목되는 지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3. 원불교 교단 언론의 역사적 정체성

원불교 교단 언론의 역사는 교단 내부 소통과 대사회적 발화, 교화 기능과 언론적 책무가 함께 조정되어 온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초기 원불교 교단 언론은 교리 전달과 공동체 결속을 위한 매체로 출발하였으나 교단의 제도화와 사회적 위상 변화 속에서 공론 형성과 대사회적 소통의 기능을 점차 확대해 왔다. 『원불교 100년총람』은 원불교 교단 언론이 초기부터 교단 행정조직 안에서

교화·홍보·교육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설명한다(원불교100년기념성업회, 2017). 이 구조는 교단의 통합성과 일체감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언론의 비판적 자율성이 제도적 조건 안에서 제약될 수 있음을 함께 보여준다. 원불교 교단 언론의 정체성은 교리 전달과 언론적 책임 사이의 긴장을 조정하면서 형성되어 온 역사적 산물로 볼 수 있다.

창립기 원불교 교단 언론의 중심 기능은 내부 소통과 교리 전달에 있었다. 1928년 등사본으로 간행된 <월말통신>은 원불교 교단 언론의 효시로 평가되며, 이후 <월보>와 <회보>로 이어지는 간행물은 교리 전수와 공동체 결속을 위한 제도적 소통 장치로 기능하였다. 『원불교대사전』은 <월말통신>을 법설 요지, 예회 기록, 지부 소식을 공유하며 교도 간 신앙과 의식을 통합하는 매체로 규정한다(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3). 특히 예회 식순에 <월말통신> 낭독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초기 간행물이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 공동체의 언어적·의례적 결속을 형성하는 매체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박영학(1996)이 <회보>의 논설과 시사 기사에 주목해 불법연구회가 국제 정세와 사회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독자적 세계관을 구축했다고 분석한 점은, 초기 원불교 교단 언론이 내부 결속과 함께 외부 현실을 교단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상적 기능도 지니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해방 이후 원불교 교단 언론은 제도화와 함께 언론적 자의식을 확장해 갔다. 1949년 창간된 <원광>은 교리 해설, 수행 체험, 문화 활동, 행정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며 교단의 교화 체계를 매체 형식으로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969년 창간된 <원불교신보>는 창간사에서 “원불교의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을 겨레와 인류 앞에 반사하기 위하여”, “뜻은 제생에 있고 목표는 의세에 있다”고

밝힘으로써, 교단 언론이 내부 소식 전달을 넘어 시대 현실을 해석하고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언론성은 1970~1980년대 사설 전통에서도 확인된다. <원불교신보>의 「교단사를 지켜보는 엄숙한 증인」은 헛된 칭찬에 머무르지 않고 그릇된 것은 들추어보며 지도자들에게 충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언론관을 보였고(<원불교신보>, 1977), 「성숙한 교단의 소리」는 비판을 신문을 신문답게 하는 생명력으로 이해하였다(<원불교신보>, 1988). 또한 <원불교신문>의 「새 시대의 도표」는 교단 언론이 행정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관보가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언론이어야 함을 선언하였다(<원불교신문>, 1989). 이 사례들은 원불교 교단 언론 내부에 비판과 기록, 충고와 성찰을 공동체 성숙의 조건으로 이해하려는 문제의식이 축적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이후 원불교 교단 언론은 <원불교신문>, <원음방송>, <월간원광> 등을 중심으로 매체 다각화를 이루며 교화, 공론, 생활 문화의 영역을 분담하였다. 이 흐름은 원불교 교단 언론이 매체별 성격에 따라 교단 내부 소통과 대사회적 전달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원불교 교단 언론의 정체성은 교리 전파와 공동체 결속을 중시하는 기관지적 기능, 기록·비판·공론 형성을 지향하는 언론적 기능이 역사적 국면에 따라 결합되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원불교 교단 언론의 한계는 교단 소유 구조와 매체 운영의 제도적 조건에서 비롯되지만, 그 가능성은 창간사와 사설 전통에서 확인되는 언론성의 자각 속에 축적되어 왔다. 이 점에서 원불교 교단 언론의 규범적 과제는 기관지성과 언론성 사이의 긴장을 조정하고, 교단 내부의 소통을 공적 성찰과 책임 있는 공론 형성으로 확장하는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Ⅲ. 원불교 교리를 통한 저널리즘 규범의 재구성

1.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와 진실성

현대 저널리즘의 제1원칙은 진실에 대한 의무이며, 그 실천의 핵심은 사실을 확인하는 ‘검증의 규율’에 있다. 코바치와 로젠스틸(Kovach and Rosenstiel, 2021)은 저널리즘이 다루는 진실을 철학적 절대 진리와 구별되는 기능적 진실로 설명하며, 그것이 사실의 검토와 정제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원불교 교리는 이러한 진실성을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유의 자원을 제공한다. 『정전』 교리도는 “일원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제불제사의 심인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라 밝히고, 『정전』 「교의편」은 일원상의 진리를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고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으며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설명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원불교 저널리즘의 진실성을 가시적 사실의 표면을 넘어 이치와 인과적 맥락까지 함께 드러내려는 과제로 해석한다.

일원상이 지닌 초월과 포월의 구조는 언어와 실재의 관계를 다시 성찰하게 한다. 원불교가 진리의 당체를 언어로 완전히 포착할 수 없는 자리로 설명한 것은 언어라는 매체가 진리 전체를 온전히 재현할 수 없다는 한계를 전제한다. 이는 인간이 대상의 현상적 속성에는 접근할 수 있으나 그 내재적 본질을 완전히 점유할 수 없다는 인식론적 겸손의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Langton, 1998). 저널리즘의 진실성은 절대적 진리를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한된 인식 조건 속에서도 검증 가능성과 설명 책임을 유지하려는 태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워드(Ward, 2007)가 말한 실용적 객관

성 역시 완전한 중립보다 한계가 있는 조건 속에서 책임 있게 사실을 검증하고 제시하려는 태도에 가깝다.

이러한 인식론적 태도는 일원상이 함축하는 진공묘유의 교리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노권용(2010)은 일원상의 구조를 본체와 현상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진공묘유의 통합 질서로 해석하였다. 이 해석에 따르면 진리는 고정된 명제가 아니라 본체와 현상의 작용이 구체적 조건 속에서 드러나는 실재의 운동이다. 이를 저널리즘의 차원에서 보면 보도는 표면적 사실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의 배후에 있는 인과와 구조를 함께 설명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원불교 저널리즘의 진실성은 개별 사실뿐 아니라 사실과 맥락의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공중이 현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규범적 실천으로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진실성을 현실의 방법론으로 이어 주는 공부가 사리연구이다. 원불교에서 사리연구는 대소유무와 시비이해를 연마하여 사물의 이치와 인간사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공부를 뜻한다. 이는 현대 저널리즘의 사실 검증, 심층 취재, 맥락 분석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언론이 정보의 출처를 점검하고 사건의 인과 구조를 해명하는 일은 기술적 절차를 넘어 시비를 분별하고 공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판단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경』에 나타난 인과론은 진실 탐구를 사실 적합성의 문제에 머물게 하지 않고, 행위의 결과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확장해 생각하게 한다. 소태산의 문명론에서 과학과 도학의 병진이 강조된다는 해석 역시 진실 탐구가 경험적 검증과 윤리적 판단을 함께 요구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권동우, 2019).

원불교의 관점에서 진실은 인식에 머문 채 완성되지 않는다. 사리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른 앎은 작업취사를 통해 현실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작업취사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실행의 원리이며, 진리가 실제 삶의 장면 속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단계이다. 송성진(2023)은 소태산 박중빈의 교리 형성 과정을 분석하면서 “정·혜가 있어도 취사가 없으면 결실이 없다”고 설명한다. 이는 진실이 관념적 인식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 선택과 실천 속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저널리즘에 적용하면, 어떤 의제를 공론장에 올릴 것인지, 어떤 왜곡된 프레임을 배제할 것인지, 무엇을 드러내고 비판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은 작업 취사의 교리와 연결된다. 원불교 저널리즘의 진실성은 사실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적 의미를 지닌 사실을 책임 있게 선택하고 제시하는 실천까지 포함한다.

2. 무아봉공과 제생의세에 내재한 공공성

저널리즘에서 공공성은 언론이 사적 이해관계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공적 신뢰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규범적 가치이다. 공론장 논의와 미디어 수행 평가 연구는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고, 공동체가 함께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언론의 핵심 책무로 이해해 왔다(Habermas, 1962/1991; McQuail, 2010). 그러나 공공성은 제도적 조건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언론 조직이 공적 책무를 표방하더라도 보도 주체가 조직 보존, 내부 관계, 사적 이해, 권력과의 거리 문제에 포획될 경우 공공성은 형식적 선언으로 축소될 수 있다. 특히 종교 저널리즘은 교리 전달과 공동체 결속이라는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공적 의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언론적 기능을 함께 요구받는다.

원불교에서 ‘무아봉공’은 공공성의 내면적 토대를 형성하는 개

넘이다. 『정전』 「수행편」은 무아봉공을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 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써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무아는 자아의 소멸이나 자기 부정이 아닌 사적 욕망과 자기중심성에 갇힌 소아를 넘어 공동체와 세계를 향한 대아적 실천으로 나아가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무아봉공은 공공성을 외부로부터 주어진 제도적 의무가 아니라, 사적 이해를 내려놓고 공적 가치를 선택하려는 수행적 태도로 이해하게 한다.

이를 저널리즘의 맥락에서 해석하면 무아봉공은 보도 주체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기자와 편집 주체가 개인적 영달이나 조직의 체면, 내부 관계의 안정만을 우선한다면 공공성은 실현되기 어렵다. 반대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사회적 책무를 기준으로 삼을 때 보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공적 실천의 성격을 갖는다. 원불교 저널리즘에서 무아봉공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어떤 문제를 공론장에 올릴 것인가, 공동체가 불편해하더라도 어떤 사실을 다루어야 하는가를 판단하게 하는 내면의 규율로 작동한다.

‘제생의세’는 이러한 무아봉공의 태도를 사회적 실천의 방향으로 확장한다. 제생의세는 고통받는 존재를 구제하고 병든 세상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종교적 실천이 개인의 수행이나 공동체 내부의 결속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의 고통과 시대의 문제에 응답해야 한다는 원불교의 공적 지향을 보여준다. 이 맥락에서 제생의세는 원불교 저널리즘이 내부 소식 전달이나 교리 홍보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안팎의 문제를 공적 의제로 전환해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

원불교 저널리즘의 공공성은 무아봉공과 제생의세가 결합될 때

구체화된다. 무아봉공이 사적 이해를 넘어 공적 선을 선택하게 하는 주체의 태도라면, 제생의세는 그 선택이 향해야 할 사회적 방향을 제시한다. 이 둘의 결합은 공공성을 단순한 공익 표방이나 중립적 정보 제공으로 축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 고통을 드러내고, 공동체가 외면한 문제를 공론화하며, 가능한 해결 방향을 모색하도록 요구한다. 원불교 저널리즘의 공공성은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갈등을 덮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장기적 성숙과 사회적 신뢰를 위해 필요한 문제를 드러내고 함께 판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은 원불교 전통의 사회적 실천과 교단 언론의 역사적 자기 이해 속에서도 확인된다. 해방 직후 불법연구회의 ‘귀환전 재동포구호사업’(원영상, 2018)과 앞서 살펴본 〈원불교신보〉 창간사(1969)는 무아봉공과 제생의세가 원불교 전통 안에서 구체적인 사회적 실천과 언론적 지향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뒷받침한다.

3. 처처불상·사사불공과 지공무사에 나타난 공정성

공정성은 그 문제를 어떤 태도와 기준으로 다룰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저널리즘에서 공정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점이 충돌하는 사안을 다룰 때 특정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을 균형 있게 재현하려는 규범적 태도이다. 현대 저널리즘 연구에서 공정성은 객관성, 균형성, 다양성, 책임성 등의 가치와 함께 논의되어 왔으며, 국내의 기사 품질 연구와 저널리즘 가치 연구에서도 단순한 중립의 형식보다 사회적 책임과 균형 있는 관점 구성의 문제로 이해되어 왔다(McQuail, 2010; 김경모 외, 2018; 김경희·정사강, 2023).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공정성은 공적 사안을 둘러싼 여러 관점과 이

해관계를 책임 있게 재현하는 판단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종교 저널리즘에서 공정성은 더욱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난다. 종교 언론에서는 교단 내부의 권위 구조, 공동체 보호 논리, 신앙적 정체성, 내부 관계망이 보도 판단에 함께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 공동체 내부의 갈등 사안을 다룰 때 비판적 관점이나 소수의견은 공동체를 흔드는 목소리로 간주되기 쉽고, 공식 기구의 입장은 공동체 안정의 이름으로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성은 기사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목소리를 정당한 의견으로 인정하고, 어떤 관점을 주변화하는가의 문제로 확장된다.

원불교의 ‘처처불상’과 ‘사사불공’ 교리는 언론의 공정성을 취재원과 관계적 측면으로 전환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정전』은 처처불상을 우주 만유가 법신불의 응화신이므로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사사불공을 대하는 일마다 불공의 도리로 하라는 실천 강령으로 제시한다. 처처불상이 모든 존재를 법신불의 현현으로 보는 평등의 관점이라면, 사사불공은 그 평등 인식을 구체적 관계와 행위 속에서 실천하라는 요청이다. 이 두 교리에 따르면 언론이 다루는 취재 대상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할 관계적 주체이다.

이를 저널리즘의 언어로 옮기면, 공정한 보도는 A측과 B측의 발언을 같은 분량으로 배열하는 데서 완성되지 않는다. 각 주체가 놓인 맥락과 처지, 말할 수 있는 조건과 말하지 못하게 된 구조까지 살피는 태도가 필요하다. 종교 공동체 내부에서 공식 기구와 개혁을 요구하는 평교도 또는 소수 집단 사이에 발언권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경우, 양쪽 입장의 병렬은 기존의 비대칭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 처처불상·사사불공의 관점에서 원불교 저널리즘의 공정성은 공식 입장과 비공식 경험,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모두 공적 판단의 장 안에서 존중하고, 발언권이 약한 주변부의

목소리에도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실천이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목소리를 존중한다는 것이 판단의 유예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정성은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듣되 사안의 이치와 공적 기준에 따라 무엇이 더 타당한지 판단하려는 책임 있는 태도에 가깝다. 관계적 존중이 사사로운 온정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지공무사의 객관적 잣대가 요구된다. 앞 절의 무아봉공이 “왜 공적 문제를 말해야 하는가”의 문제라면, 지공무사는 “그 문제를 어떻게 치우침 없이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종교 언론은 취재 대상과 독자, 조직 운영 주체가 동일한 공동체 안에 겹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계의 부담이 보도 판단을 제약할 수 있다. 원불교 저널리즘의 공정성은 관계를 존중하되 그 관계에 끌려가지 않는 공변된 판단에서 성립한다.

원불교 교단 언론의 역사적 자기 이해 역시 이러한 공정성의 문제와 연결된다. 〈원불교신보〉의 사설 「교단사를 지켜보는 성숙한 증인」은 헛된 칭찬에 머무르지 않고 그릇된 것은 들추어보며 지도자들에게 용기 있는 충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언론관을 드러냈다(〈원불교신보〉, 1977). 「성숙한 교단의 소리」는 비판을 신문을 신문답게 하는 생명력으로 이해하면서도, 그 비판이 공동체를 허무는 방식이 아니라 성숙을 지향하는 방식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원불교신보〉, 1988). 앞서 살펴본 〈원불교신문〉의 사설(〈원불교신문〉, 1989) 역시 이러한 언론관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설 전통은 원불교 교단 언론 내부에 비판과 기록, 충고와 성찰을 공동체 성숙의 조건으로 이해하려는 문제의식이 축적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공정한 재현이 공중의 실질적 신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도와 판단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절차적 투명성의 문제로 연결된다.

4. 공의와 공중의 도를 통한 절차적 투명성

투명성은 판단과 보도의 과정이 어떤 근거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공중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현대 저널리즘에서 투명성은 언론이 무엇을 알고 있으며 어떤 경로와 판단 과정을 거쳐 보도로 구성했는지를 설명하는 책임의 원리이다. 저널리즘이 검증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논의와 언론 윤리를 시대 변화 속에서 재구성되어야 할 규범 체계로 이해하는 관점은 투명성을 진실성이 사회적으로 신뢰받기 위한 절차적 조건으로 보게 한다(Ward, 2007; Kovach and Rosenstiel, 2021).

종교 저널리즘에서 투명성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보편 저널리즘에서 독립성은 정치 권력이나 자본, 조직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종교 언론은 특정 종교 공동체의 제도와 재정, 인사 구조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일반 언론과 같은 방식의 완전한 구조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종교 언론의 규범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조적 독립성이 제한되는 조건일수록 어떤 기준으로 사안을 선택했는지, 누구의 설명을 들었는지, 어떤 반론을 검토했는지, 판단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 점에서 종교 저널리즘의 투명성은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현실적 규범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원불교의 ‘공의’는 구조적 독립성의 한계를 보완할 투명성의 교리적 근거가 된다. 공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안의 근거와 맥락을 공유한 상태에서 공적인 판단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가깝다.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쟁점의 핵심이 드러나지 않으며, 서로 다른 관점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의라기보다 형식

적 동의에 가까워진다. 공의는 결과의 이름이 아니라 과정의 이름이다. 공동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논의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 판단했는지를 공유할 수 있을 때 공의는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

원불교 교단 언론 내부에서도 공의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교단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논의되어 왔다. 권원준은 〈원불교신문〉 ‘기자의 시각’ 코너의 「원불교의 핵심역량 ‘공의’」에서 교단적 판단이 정확한 정보와 구성원 사이의 충분한 논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환기하였다(권원준, 2021). 이 문제의식은 원불교 저널리즘의 투명성 논의와 맞닿아 있다. 보도가 지도부의 결정 사항을 하달하는 데 그친다면 구성원은 판단의 근거와 맥락에 접근하기 어렵고, 속의의 전제 역시 악화된다. 진정한 공의는 쟁점의 핵심 사실이 투명하게 제시되고, 상충하는 관점들이 논의의 장 안에서 교차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정산중사범어』에 제시된 ‘공중의 도’ 역시 투명성의 규범적 의미를 심화시킨다. 공의가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판단을 형성하는 속의의 과정이라면, 공중의 도는 그 속의가 조직 보존이나 사사로운 이해가 아닌 공적 책임의 절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요청한다. 원불교 저널리즘에서 공중의 도는 언론이 특정 지도부나 기관의 입장을 대신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공중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공중은 수용자나 독자에 머무르지 않고, 종교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공적 판단의 주체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절차적 투명성은 정보원의 투명성, 검증 근거의 투명성, 판단 과정의 투명성, 응답과 수정 절차의 투명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익명 정보나 불분명한 전언에 기대어 공동체의 중대한 사안을 다룰 경우 독자는 보도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어렵

다. 기사나 논평은 주장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어떤 자료와 사실 확인을 거쳤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어떤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삼았고, 어떤 관점을 채택하거나 배제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반론권, 정정 보도, 후속 설명의 통로도 열려 있어야 한다. 일련의 투명성 확보 장치는 편집권을 위축시키는 외부 통제가 아니다. 오히려 비공식 권력의 개입과 왜곡된 여론을 차단하여 교단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는 내부 자정 시스템이다.

다만 투명성은 모든 정보를 무조건 공개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 종교 공동체 내부에는 개인의 신앙, 상담, 수행,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존재한다. 이러한 영역까지 무차별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또 다른 침해가 될 수 있다. 원불교 저널리즘의 투명성은 폭로의 규범이 아니라 절차의 규범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무엇을 공개할 것인가의 기준은 공적 필요성,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의 권리, 반론과 설명의 기회, 교단 운영의 책임성과 연결되어 판단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공적 사안에 대해 왜 보도했는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원불교 교단 언론의 역사적 자기 이해와도 연결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원불교신문〉의 선언(〈원불교신문〉, 1989)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선언은 원불교 언론이 단순한 공지 전달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매체여야 한다는 자의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역사적 자원은 원불교 저널리즘의 투명성이 공의와 공중의 도라는 내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정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투명성은 앞서 논의한 진실성, 공공성, 공정성을 실제 공동체의 신뢰로 연결하는 규범적 장치로 작동한다.

Ⅳ. 원불교 저널리즘의 규범 모델과 실천적 함의

1. 규범 모델의 구조

원불교 저널리즘 규범 모델은 교단 언론의 제도적 조건 속에서 보편 저널리즘 규범이 원불교 교리의 사상적 구조를 통해 재정식화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틀이다. 교단 언론은 교리 전달과 공동체 결속, 조직 질서와 교화 목적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사실 검증, 공론 형성, 비판, 설명 책임을 요청받는다. 이러한 조건은 저널리즘 규범을 외부 기준으로 단순 적용하거나 종교적 특수성을 이유로 유보하는 방식 모두를 넘어, 교단 언론의 책임 구조 안에서 진실성,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을 다시 정립할 필요를 제기한다.

이 모델의 독자성은 네 규범의 개별 의미보다, 교단 언론의 조건 속에서 이 규범들이 상호 조정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진실성,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은 각각 인식, 목적, 관계, 절차의 차원에서 작동하며, 교단 언론이 기관지적 기능을 넘어 종교적 공론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요청되는 통합적 규범 질서를 이룬다.

진실성은 원불교 저널리즘의 인식 기준이다. 법신불 일원상, 사리연구, 작업취사는 사실의 정확성을 이치와 맥락의 검토, 책임 있는 선택의 문제로 확장한다. 이 점에서 진실성은 공공성이 성립할 인식적 토대가 된다. 공공성은 진실성이 향해야 할 목적의 기준이다. 무아봉공과 제생의세는 확인된 사실이 교단 내부의 유익을 넘어 공동체 성숙과 사회적 책무로 연결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공정성은 공공성이 특정 권위나 집단의 이해로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관계의 기준이다. 처처불상·사사불공은 취재 대상과 공중을 존중되어야 할 관계적 주체로 보게 하며, 지공무사는 관계의 압력

속에서도 사안을 공변되게 판단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 투명성은 진실성, 공공성, 공정성을 공중의 신뢰로 연결하는 절차의 기준이다. 공의와 공중의 도는 구조적 독립성이 제한되는 종교 언론에서 판단의 근거, 검토된 반론, 책임의 소재를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다.

네 가지 규범은 상호 연동하는 유기적 체계다. 진실성 검증이 누락된 공공성은 명분에 불과하며, 공적 목적을 상실한 진실 추구는 파편화된 정보 나열에 그친다. 공정성은 특정 이해로의 치우침을 막는 관계의 기준이며, 투명성은 그 판단 과정을 설명하는 책임의 장치이다. 이 구조 속에서 원불교 저널리즘은 사실의 출처와 맥락을 검증하고, 디지털 뉴스 유통 환경 속에서도 그 사실의 공적 의미를 밝히며, 다양한 관계와 목소리를 공변되게 다루고, 판단 과정과 책임의 근거를 설명하는 규범 체계로 정립된다.

원불교 저널리즘 규범 모델의 이론적 의의는 교단 언론의 특수성을 보편 저널리즘 규범 밖의 예외로 두지 않는 데 있다. 원불교 교리는 보편 저널리즘 규범을 교단 언론의 현실 안에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사상적 근거가 되며, 저널리즘 규범은 원불교 교리가 공동체 내부의 신앙 언어에 머무르지 않고 공적 소통과 사회적 책임의 언어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원불교 저널리즘은 기관지적 기능과 공론장적 책임 사이의 긴장을 조정할 수 있는 이론적 사례로 의미를 지닌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원불교 저널리즘 규범 모델의 구조

규범 가치	원불교 교리 자원	재구성된 의미	차원
진실성	법신불 일원상, 사리연구, 작업취사	사실의 정확성과 맥락, 책임 있는 선택	인식
공공성	무아봉공, 제생의세	공동체 성숙과 사회적 책무	목적
공정성	처처불상 · 사사불공, 지공무사	관계적 존중과 공변된 판단	관계
투명성	공의, 공중의 도	설명 가능한 절차와 책임	절차

2. 실천 조건과 확장 가능성

원불교 저널리즘 규범 모델의 실천 가능성은 교리적 정당성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진실성,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이 종교 언론의 규범 체계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종교 언론의 제도적 조건 안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실천 조건은 공동체 보호와 비판적 책임 사이의 긴장을 조정하기 위한 규범적 조건이다. 이를 편집 원칙, 규범적 전문성, 설명 가능한 책임 구조의 세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종교 언론은 기관지적 기능과 공론장적 책임을 조정하는 편집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교단 소식 전달, 교리 해설, 공동체 결속은 종교 언론의 중요한 기능이다. 문제는 이 기능이 공동체 내부의 성찰과 토론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굳어질 때 발생한다. 교단의 결정과 정책을 전달하는 일도 그 배경과 쟁점,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과 공적 의미를 함께 해석할 때 공론장적 기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원불교 저널리즘의 편집 원칙은 교단의 정체성 전달을 공동체적 성찰의 계기로 전환하는 데 있다.

둘째, 종교 언론의 기자와 편집 주체는 규범적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종교 저널리즘의 전문성은 기사 작성 능력이나 취재 기술에 그치지 않고, 교리적 이해와 저널리즘적 판단을 함께 수행하는 규범적 역량을 뜻한다. 사리연구, 무아봉공, 지공무사, 공의와 공중의 도는 각각 검증, 공적 의제 선택, 공변된 판단, 설명 책임의 감각으로 이어진다. 원불교 저널리즘의 전문성은 교리 해설 능력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을 검증하고 공적 의제를 식별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공변되게 재현하고 그 판단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통합적 역량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종교 언론은 설명 가능한 책임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종교 언론이 교단의 제도와 재정, 인사 구조 안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이 곧 저널리즘의 한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 언론과 같은 방식의 구조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보도 대상의 선정 기준, 정보원의 확인, 반론의 검토, 판단의 근거가 공중 앞에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책임 구조의 핵심은 편집 판단의 설명 가능성, 반론과 정정 절차의 보장, 책임 소재의 명확성에 있으며, 이는 독자위원회 운영, 정보원·자료 명시 원칙, AI 활용 범위의 고지, 인간 편집자의 최종 확인 책임, 정정보도와 후속 설명 가이드라인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독립성이 제도적 거리의 문제라면, 투명성은 책임의 가시성에 관한 문제이다. 원불교 저널리즘에서 공의와 공중의 도는 판단의 근거와 맥락을 구성원과 공유하고, 그 판단이 사사로운 이해가 아닌 공적 책임의 절차를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요청한다.

이 세 차원은 하나의 책임 구조 안에서 맞물린다. 편집 원칙은 무엇을 공론화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규범적 전문성은 그 의제를 어떤 기준과 태도로 다룰 것인가의 문제이며, 설명 가능한 책임 구조는 그 판단의 근거와 절차를 공중 앞에 드러내는 조건이다. 이 세 차원이 결합할 때 원불교 저널리즘의 규범 모델은 종교 언론의 실제 책임 구조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 모델의 확장 가능성도 이 범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모델은 각 종교가 고유한 교리 체계와 권위 구조, 언론 전통을 지닌다는 점에서 다른 종교 언론에 직접 이전되기 어렵다. 다만 종교 언론이 공동체 보호와 비판적 책임의 긴장, 신앙적 정체성과 사회적 책무의 조정 문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 모델은 종교 전통 내부의 사상적 자원을 통해 보편 저널리즘 규범을 재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V. 결론

이 연구는 공론장의 신뢰가 약화되는 현대 저널리즘 환경에서 종교 저널리즘의 규범적 가능성을 원불교 교리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오늘날 저널리즘의 위기는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을 넘어 사실 검증, 공적 책임, 공정한 재현, 투명성과 설명 책임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종교 전통 안에 축적된 교리적 자원은 저널리즘 규범을 재해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종교 저널리즘은 보편 저널리즘 규범과 종교 공동체의 특수성이 중첩되는 실천 영역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종교 언론은 교리 전달, 공동체 결속, 조직 정체성 유지라는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사실 검증, 비판, 공론 형성, 설명 책임이라는 언론적 책무를 함께 요구받는다. 이 긴장은 종교 저널리즘의 한계를 뜻하기보다, 보편 저널리즘 규범이 종교 공동체의 제도적 조건 안에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가를 묻는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원불교 교리의 사상적 구조는 진실성,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근거로 검토되었다. 법신불 일원상과 사리연구는 진실성을 사실의 정확성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이치와 맥락의 검토, 책임 있는 선택의 문제로 확장하게 한다. 무아봉공과 제생의세는 공공성을 공동체 성숙과 사회적 책무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하며, 처처불상·사사불공과 지공무사는 공정성을 관계적 존중과 공변된 판단의 문제로 심화한다. 또한 공의와 공중의 도는 종교 언론에서 구조적 독립성의 한계를 투명성과 설명 책임의 문제로 재정식화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원불교 저널리즘 규범 모델은 인식, 목적, 관계, 절차

의 네 가지 차원을 통합하여 정립된다. 이 규범 모델 안에서 진실성은 공공성이 성립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며, 공공성은 확인된 사실을 공동체의 과제로 확장하는 목적타당성이 된다. 공정성은 공공성이 특정 권위나 집단의 이해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기준이며, 투명성은 그 판단이 어떤 근거와 절차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공중 앞에 설명하게 하는 책임의 장치이다.

학술적 의의는 세 가지이다. 첫째, 종교 저널리즘을 보편 저널리즘 규범의 결핍된 형태로만 보지 않고, 종교 전통 안에서 저널리즘 규범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장으로 해석하였다. 둘째, 원불교 교리를 저널리즘 규범론의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종교 교리와 사회과학적 규범 논의 사이의 접점을 모색하였다. 셋째, 원불교 교단 언론의 역사적 자기 이해와 교리적 자원을 연결하여 종교 저널리즘의 규범 모델을 제시하였다.

실천적 함의는 기관지적 기능과 공론장적 책임의 관계를 재정식화한다는 데 있다. 교단의 소식과 정책을 전달하는 일도 그 배경과 쟁점, 구성원의 다양한 관점, 공적 의미를 함께 제시할 때 공동체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원불교 저널리즘의 과제는 종교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데 있지 않고, 교리 전달의 기능을 공적 성찰과 설명 가능한 책임 구조 속에서 확장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개념적 재구성에 기초한 규범 이론 연구이므로, 실제 보도 사례, 기사 생산 과정, 종사자 인식과 독자 수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보원 명시, 반론권 반영, 정정·후속 설명 여부 등을 내용분석 지표로 삼고, 종사자 인터뷰·독자 조사·타 종교 비교를 통해 본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알고리즘 기반 유통·클릭 경제·온라인 공론장 변화 속 실천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동우. 2011. “원불교와 불교의 관계 재고.”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0: 1-28.
- 권동우. 2019. “법인기도의 근·현대 종교사적 의의: 소태산의 ‘문명’론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2: 9-44.
- 권원준. 2021. “원불교의 핵심역량 ‘공의.’” 〈원불교신문〉, 7월 9일.
- 김경모·박재영·배정근·이나연·이재경. 2018. 『기사의 품질: 한국 일간지와 해외 유력지 비교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김경희·정사강. 2023. “한국 언론의 저널리즘 가치 연구: 한국기자상 50년의 심사평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7(4): 124-157.
- 김두식. 2017. “불교계 신문의 실태와 발전방향: 불교계 신문 기자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82: 363-401.
- 김방룡. 2014. “『금강경』과 원불교 사상: 원불교와 불교의 새로운 관계모색을 제안하며.”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9: 1-54.
- 김승수. 1999. “종교자본 언론은 종교와 언론의 융합인가 아니면 강제 동거인가.” 『저널리즘비평』 28: 18-23.
- 김영재. 2006. 『불교 언론의 이해』. 서울: 한국학술정보.
- 노권용. 2010. “『교리도』의 교상판석적 고찰.”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45: 255-302.
- 박영학. 1996. “일제하 불법연구회 회보에 관한 연구.” 『원불교학』 1: 159-194.
- 박영학. 1998. 『커뮤니케이션과 종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진규. 2023. 『미디어, 종교로 상상하다』. 서울: 컬처룩.
- 손병욱. 2014. “한국불교의 대승보살도 실천을 위한 방안 고찰: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의 문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19: 223-259.
- 송성진. 2023. “소태산 박종빈의 『불교정전(佛敎正典)』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인걸. 1992. “일제치하 원불교 언론의 연구: 불법연구회 정기간행물의 회설분석을 중심으로.” 『정신개벽』 11: 113-136.
- 원불교100년기념성업회. 2017. 『원불교 100년총람』. 익산: 원불교100년기념성업회.
-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3. 『원불교대사전』. 익산: 원불교출판사.

- 원불교정화사 편. 1977. 『원불교전서: 정전』. 익산: 원불교출판사.
- 원불교정화사 편. 1977. 『원불교전서: 대중경』. 익산: 원불교출판사.
- 원불교정화사 편. 1977. 『원불교전서: 정산종사법어』. 익산: 원불교출판사.
- 〈원불교신보〉. 1969. “창간사.” 6월 1일.
- 〈원불교신보〉. 1977. “사설: 교단사를 지켜보는 엄숙한 증인.” 12월 10일.
- 〈원불교신보〉. 1988. “사설: 성숙한 교단의 소리.” 5월 16일.
- 〈원불교신문〉. 1989. “사설: 새 시대의 도표.” 7월 7일.
- 원영상. 2014. “소태산 박종빈의 불교개혁사상에 나타난 구조 고찰.” 『신종교연구』 30: 121-154.
- 원영상. 2018. “근대 개혁신교의 사회적 공공성: 불법연구회의 귀환전재동포구호사업 을 중심으로.” 『선문화연구』 24: 307-344.
- 이규원 · 이미나. 2021. 『솔루션 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호근 · 허세영 · 신지은 · 양윤주 · 김인오 · 조경원 · 김현석. 2023. “코로나19 뉴스 기사의 품질에 대한 탐색적 분석: 국내 주요 종합 일간지 및 방송사 기사 내용분석.” 『한국언론학보』 67(4): 272-302.
- 차배근 · 하종원 · 이종혁. 2017. 『커뮤니케이션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Carey, J. W. 1989. *Communication as Culture: Essays on Media and Society*. Boston: Unwin Hyman.
- Christians, C. G., T. L. Glasser, D. McQuail, K. Nordenstreng and R. A. White. 2009. *Normative Theories of the Media: Journalism in Democratic Societie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Commission on Freedom of the Press. 2005.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김동규 옮김. 서울: 나남출판. 원저 1947.
- Dewey, J. 2011. 『공중과 그 문제』. 김창욱 옮김. 서울: 나남출판. 원저 1927.
- European Broadcasting Union. 2025. *Leading Newsrooms in the Age of Generative AI*. Geneva: European Broadcasting Union.
- Fraser, N. 1990.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Social Text* 25/26: 56-80.
- Habermas, J. 1991. 『공론장의 구조변동』. 한홍구·이진우 옮김. 서울: 나남출판.

원저 1962.

- Hoover, S. M. 2006. *Religion in the Media Age*. London: Routledge.
- Kovach, B. and T. Rosenstiel. 2021.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개정 4판. 이재경 옮김.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Langton, R. 1998. *Kantian Humility: Our Ignorance of Things in Themselv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ippmann, W. 2014. 『여론』. 전규찬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원저 1922.
- McQuail, D. 1992. *Media Performance: Mass Communication and the Public Interest*. London: Sage.
- McQuail, D. 2010. *McQuail's Mass Communication Theory*. 6th ed. London: Sage.
-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2025. *Digital News Report 2025*. Oxford: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 Siebert, Fred S., Theodore Peterson, and Wilbur Schramm. 1995. 『언론의 4이론』. 이영화 옮김. 서울: 나남출판. 원저 1956.
- Ward, Stephen J. A. 2007. 『언론윤리의 재발견: 객관성에 대한 역사적·철학적 탐구』. 이은택 옮김. 서울: 에피스테메. 원저 2004.

(논문 접수 : 2026.05.09. / 수정본 접수 : 2026.06.08. / 게재 승인 : 2026.06.16.)

ABSTRACT

Seeking Normative Alternatives for
Religious Journalism:
Reconstructing a Normative Model through the Doctrine
of *Won*-Buddhism

Kim, Seung-ho

Ph. D. Candidat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hoi, Yong-jun

Profess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gainst the backdrop of weakening public trust in contemporary journalism, this study examines the normative potential of religious journalis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octrine of *Won*-Buddhism. The crisis of journalism today extends beyond technological adaptation to the re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fact verification, public responsibility, fair representatio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his study understands religious journalism not as an exception to or deficiency in universal journalistic norms, but as a field in which such norms can be reconstructed through religious doctrinal resources.

Methodologically, this study employs a literature review and conceptual reconstruction. It examines theories of journalism norms, religious communication, historical materials on the denominational

media of *Won*-Buddhism, and key doctrinal texts such as The Principal Book of *Won*-Buddhism and The Scripture of the Founding Master. The discussion shows that Il-*Won*-Sang, the Dharmakāya Buddha, and Sari Yŏn'gu expand truthfulness toward principle, context, and responsible selection. Mua-bonggong and Jesaeng-uis explain publicness in terms of communal matur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Cheocheo-bulsang and Sasa-bulgong, together with Jigong-musa, deepen fairness as relational respect and impartial judgment. Gong-ui and Gongjung-ui-do reformulate the structural limits of independence a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Based on this discussion, this study proposes a normative model of journalism in *Won*-Buddhism structured around cognition, purpose, relationship, and procedure. In this model, truthfulness grounds publicness, publicness directs fairness, and fairness is connected to public trust through transparency. It further presents editorial principles, normative professionalism, and an explainable structure of responsibility as practical conditio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reconstructing the doctrine of *Won*-Buddhis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ormative theory of journalism and proposing a normative model for religious journalism. This discussion presents a perspective that understands religious media as a public communicative space in which religious values and universal journalistic norms intersect.

Key Words: Religious Journalism, Denominational Media of *Won*-Buddhism, Journalism Norms, Doctrine of *Won*-Buddhism, Normative Model